

다문화 사회에서의 배려교육의 의미

성균관대 교육학과 석사과정 서다예

목차

- I. 서론 (선행연구고찰, 목적, 필요성)
- II. 다문화 사회의 개념과 관점
 - 1. 다문화의 개념
 - 2. 다문화주의의 관점들
- III. 다문화 사회에서의 배려
 - 1. 배려의 개념
 - 2. 다문화 사회에서의 배려가 차지하는 위치
 - 3. 배려에 바탕을 둔 교육
- IV. 다문화 사회에서의 배려교육의 의미
 - 1. 교육적 의미
 - 2. 기독교 교육적 의미
- V. 결론

I. 서론

서구 사회에서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다문화교육의 여러 접근법들이 시도되었다.¹⁾ 다문화교육의 여러 접근방식 가운데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두 접근방식은 다문화 사회정의 교육(multicultural social justice education)과 배려중심 다문화교육(Caring-Centered Multicultural Education)이다. 먼저 다문화 사회정의 교육은 사회정치적인 관점이 가장 강한 접근법이다(추병완, 2011: 2). 사회에서의 공평과 정의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 계층화에 도전하며 더 직접적으로 집단 차이에 기초한 억압 및 사회 구조적 불평등을 다루는 것이다(지현아, 2013: 64). 이러한 다문화 사회정의교육은 실질적으로 인종, 계층, 성별, 장애에 근거한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행동을 독려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생에게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 계급차별주의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그와 관련된 적절한 태도와 사회적 행동기술을 발달시킴으로써, 차별에 대한 투쟁과 문제해결 과정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김옥순 외 역, 2009: 31). 학생들이 직접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을 분석하고 나아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학교교육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1) 다문화교육은 크게 평등지향운동 또는 평등교수-학습방법, 교육과정개혁, 다문화적 역량,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가르침 또는 차별과 편견에 대한 저항이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옥순 외 역, 2009: 23)

법과 정책, 그리고 민주적인 가치들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근거라고 보는 이러한 관점은 평등한 다문화 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룩하는 데에 행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사회 정치적인 관점이 강한 다문화교육의 접근법은 학생 자신이 불평등에 대한 자각과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자칫 위험한 교육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적 행동을 학생 내부로부터 동기를 이끌기보다는 외부로부터 강요된 교육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종적, 문화적 평등을 법과 정책을 통해 보장하는 것만으로 곧 진정한 다문화의 평화로운 공존을 가능케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나 정책이 학교의 실질적인 핵심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것을 바꾸는 것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다(추병완, 2011: 4). 사회변화를 위한 사회적 행동 외에도 다문화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은 타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용이다.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이해와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할 때에 진정한 사회정의를 가능할 것이다.

다문화 사회정의 교육에 대한 보완으로 보다 학생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위해 요청되는 태도는 배려이다. 정의롭고 동정심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수문화에 속해있어서 차별과 배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는 배려 받는 경험이 중요할 것이고, 주류문화에 속해 있어서 소수문화의 소외되는 아픔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경험이 중요할 것이다. 물론 배려 받는 사람과 배려하는 사람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려 받은 사람이 언젠가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새로운 배려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나딩스의 "배려의 원(circle)과 배려의 사슬(chain)"의 개념처럼 배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확대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배려중심 다문화교육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팡(V. O. Pang)이다. 그에 의하면 배려중심 다문화교육은 '관계 형성'과 '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하나의 철학적 지향이다(지현아, 2013: 67). 학생은 자신과 다른 맥락에 있는 타자와 관계를 맺고, 타인의 문화적 맥락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주체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회는 단자처럼 간주되는 개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 간의 '관계'는 쌍방향적이어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상호 평등한 위치이고 이는 배려의 노력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정의와 공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우리가 타인을 배려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정의롭고 공평하게 대우하는 방법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추병완, 2011: 4).

이렇듯 다문화 사회정의 교육과 배려중심 다문화교육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사회정치적 접근은 의무와 법을 중요시 하는 반면에 배려 중심적 접근은 타문화를 이해하려는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 주체성을 강조한다.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애정 없이 사회정의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회정의를 향한 구체적인 실천 없이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행동 그리고 사회정의를 추동시키는 원동력인 배려하는 태도는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배려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유럽의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의 관점과도 관련이 있다. 상호문화적 접근방식은 단자처럼 간주되는 개인이나 문화자체가 아니라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다(홍종열, 2011: 317). 모든 행위는 나와 타자의 상호작용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이한 문화집단들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관계는 상호 평등하게 쌍방향적인 교류를 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만약 문화 간의 '관계'가 힘의 논리에 따른 관계라면 힘이 센 쪽에 약한 쪽이 포

섭되어 버릴 것이고 그럴 경우 더 이상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관계’를 중요시하는 상호문화주의 관점에 따라 타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배려를 빼놓을 수 없다. 그것은 타인을 무시하거나 지배 논리에 빠지지 않으면서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이기 때문이다(장한업, 2010: 80).

다원화된 사회에서 배려는 동일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다문화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임정연·유재봉, 2012: 156). 세계 2차 대전 직전까지의 미국의 상황만 해도 다문화 사회는 상이한 문화체계를 하나의 동질문화로 흡수시키려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의 다문화 사회에서는 각 문화들이 서로 평등한 입장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문화에 유입되는 소수문화의 문화적 맥락을 존중해줄 필요성이 생겼다. 소수문화가 어떤 사회에 유입되더라도 그 개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개방적인 태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타인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배려를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다문화주의가 무엇이며, 다문화 사회에서의 배려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다문화의 관점을 토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에서의 배려교육이 가지는 교육적, 기독교 교육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관점

1. 다문화의 개념

다문화(multiculture)란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혼재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문화는 한 국가나 사회 내에 다원적 문화가 존재하는 사실, 현상을 지시하는 것이다.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국제 이주의 물결은 서구 사회에서 먼저 일어났다. 모든 국가들이 다문화 현상을 동일한 방식으로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주류문화와 소수문화의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면서 다문화 현상이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게 된 주요 이유는 취업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와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 이민자의 증가이다. 특히 결혼 이민자의 증가는 1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 3세대의 다문화자녀들이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교육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한 국가 내에 인종, 민족, 문화 등의 다양성이 증대되면 그에 따라 사회 내부의 갈등가능성도 높아진다. 주류문화와 소수문화가 어떻게 혼재할 것인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소수문화가 주류사회로부터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이한 문화 집단들 간의 잠재된 사회불안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다문화가 ‘어떤 형태’로 혼재해야하는가는 다문화 현상과 별도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다문화

(multiculture)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다문화가 사실,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이라면, 다문화주의는 다문화 현상을 두고 어떠한 신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문화주의는 여러 문화가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의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가 포함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맞아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국 사회에 나타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그것에 기반 된 다문화 담론의 활성화이다. 일찍이 서구사회에서 나타난 다문화 사회의 역사에는 여러 다문화주의의 관점들이 있었다. 공식적으로 이민을 허용하는 미국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미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겪은 서구 사회의 여러 가지 다문화주의의 관점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나라에는 어떤 다문화 사회를 실현시킬지 구상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실정에 맞게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합의점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 논의에서는 다문화주의의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고 가장 이상적인 다문화주의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2. 다문화주의의 관점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기 이전에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해온 문화적 관점은 단문화주의(mono-culturalism)이다. 이는 제도권 내에 인식가능하고 인정가능한 단 하나의 주류문화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에 비해 오늘날 받아들이고 있는 문화적 관점인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단순히 수적인 의미로 다수의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제도권 내에 인식 가능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는 의미이다. 전자의 의미는 사회 내의 다수의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아직 설명하기 이전의 의미이다. 문화의 존재양상에 따라 문화의 경계를 확고히 하여 문화적 상대주의로 흐르면서 분리주의를 조장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소수집단 내부의 독재를 예찬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이용재, 2007: 40). 그러나 후자의 의미에서 다수의 문화 공존한다는 말은 평등한 문화적·정치적 지위를 가진 상이한 문화집단을 한 사회가 끌어안는다는 것이다(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08: 89). 이는 특정 문화의 관점에서 다른 문화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기존의 다문화 모델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다문화주의는 기본적으로 상이한 모든 문화집단이 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편견이나 차별 없이 전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고유의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고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의 대화를 인정한다.

다문화주의의 관점들은 여러 나라의 다문화 정책의 역사의 흐름을 통해 추출할 수 있다. 특히 국내 다문화교육의 연구들은 주로 미국의 다문화교육 모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먼저 미국의 다문화교육 모형을 살펴보고, 더불어 보완적으로 연구해야 할 유럽의 모형인 상호문화주의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최근들어 유럽의 상호문화주의가 국내의 특수성을 보다 잘 반영한다는 논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의 다문화역사에서 볼 수 있는 동화주의, 용광로주의, 그

리고 샐러드 볼의 관점을 살펴보고 유럽의 상호문화주의의 철학적 관점이 다뤄보겠다.

첫째, 동화주의(Assimilation) 관점은 미국의 다문화주의의 전통적 모델이다. 미국 사회는 동화를 통해 주류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당연시해왔다(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08: 91) 소수집단을 이해하기 보다는 그들이 다수집단에 귀속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소수문화가 주류문화에 합류함으로써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대부분 포기해야하기 때문에 두 주체의 관계는 상당히 일방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다문화주의는 다수보다는 소수가 다수집단에 적응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는 관점도 있지만 소수에 대한 차별에는 소수의 희생이 필연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잠재적 사회불안 요소를 더 키우는 꼴이 된다. 이민 1세대의 경우 적응의 능동적 주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으로 당장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나아가 이민 2, 3세대의 다문화자녀들은 자라면서 사회로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일찍이 경험하게 되고 그로부터 축적된 불만은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이러한 동화주의의 소수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류와 비주류의 우열관계를 탈피하는 용광로 이론으로 발전한다.

둘째, 용광로 이론(Melting Pot Theory)은 네이티브즘이 갖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나타난 동화주의 역시 소수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생겨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이론이다. 용광로 이론은 소수문화이건 다수문화이건 특성의 어느 민족문화를 배제함으로써 일체의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의 개념에서 탈피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서 소수집단이건 다수집단이건 관계없이 모든 문화의 동질성을 추구하여 궁극적으로 새로운 동질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광로주의는 각 인종들의 독특한 자문화가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집단과 개인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중하기 때문이다.

앞선 동화주의와 용광로주의는 하나의 동질한 문화로 통합된다는 점에서 현상적으로 같은 모습을 띤다. 그러나 동화주의가 우월한 문화와 우월하지 않은 문화를 여전히 나누고 우월한 문화에 그렇지 않은 문화를 종속시킨다면, 용광로주의는 어떤 특정한 민족문화를 배제함으로써 우월과 비우월의 간극에서 탈피하여 동일 문화를 형성한다. 두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동질성 추구는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점이 되지 못하여 동질성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용광로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샐러드 볼(salad bowl) 이론이 등장한다.

셋째, 샐러드 볼 이론은 다양한 채소와 양념은 그것을 한 그릇에 담아도 각각의 독특한 맛을 잃지 않는다는 것에 비유한 이론이다(장한업, 2009: 108). 각 문화 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유입될 때 그 문화의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에 적용하여 진행된 모습은 소극적인 공존에 머물렀고 다른 문화를 가르쳐서 그 문화를 수용하거나 관용하도록 하는 데에 그치게 되었다.

국내 다문화교육의 연구들은 주로 앞선 다문화주의의 관점들인 미국의 다문화교육 모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다²⁾. 한편으로는 과연 이것이 한국사회에도 여전히 효과적이며 또 유일한 대책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

2) 2006년 정부가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한 이래 각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국내 외국인과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인데, 이 유형의 교육은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장한업, 2009: 106). 문제점은 안경식(공저, 2008: 57-60)에서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다. 미국의 다문화교육 모형과 더불어 보완적으로 연구해야 할 유럽의 모형인 상호문화주의가 국내의 특수성을 보다 잘 반영한다(장한업, 2009: 107)는 논의가 증가함에 따라 상호문화주의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문화주의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오늘날 우리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떠한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것이라는 것에 대해 합의해왔다. 유럽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문화교육을 이끌어 주목할 만하다. 최근 유럽의 다문화주의의 관점은 상호문화주의이다.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는 현재 가장 이상적인 다문화 철학으로 평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관점이다. 상호 문화적이란 말은 교육, 정치 그리고 사회적 목표설정이나 구상과 연계되어 표현될 경우에 사용된다(정영근, 2006: 32). 다시 말해서 문화들 사이의 연관성과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관계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 관점에서는 단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의 문화가 한 사회 내에 병존한다고 보기 보다는 문화들이 교류하고 접촉하는 현상에 주목하기 때문에 기존의 관점들로 해결하지 못하는 집단 간의 갈등과 분쟁의 상황을 공문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기존의 다문화 관점과 상호문화주의는 차이가 있다. 먼저 기존의 관점들은 문화들 간의 차이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의 동질문화를 재탄생시키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와 달리 상호문화주의 관점은 상이한 문화들 사이의 관용과 이해를 목표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 그것에 의한 중재를 지향한다(정영근, 2006: 34). 문화적, 인종적, 종족적 차이점에 배타적인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문화 간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 문화적 유사성에 초점을 맞춰 그것의 공통적 기반을 찾는 것이다. 상이한 집단이 대화가 통하기 위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공통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문화가 보편적으로 동의할만한 가치란 예를 들어 인권, 평화 등 근본적인 가치들이 있을 것이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가치들이다.

20세기의 철학적 성과로 절대적 객관성의 믿음이 해체되었고 집단들 사이의 관계를 강자와 약자의 우월관계로 보는 관점을 탈피하였다. 세계에는 문화적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화가 동등한 영향력을 갖는 수평적 혹은 평등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보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집단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근거가 배려라고 본다. 배려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태도로서, 인간도 배려를 통해 열린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과 태도 배양할 수 있다. 따라서 배려가 바탕이 되는 상호작용을 통해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발전 추구를 목표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다문화의 관점들 중에서 상호문화주의의 관점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적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배려'의 관점이 필요하며 다문화사회에서의 배려교육의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

III. 다문화사회에서의 배려와 배려교육

1. 배려의 개념

배려는 길리간(C. Gilligan)에 의해 처음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나딩스(N. Noddings)는 그 이후에 배려와 배려교육에 대한 논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헌하였다(임정연·유재봉, 2012: 135). 우리가 흔히 배려를 하나의 미덕, 즉 개인적 속성으로서 생각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에, 나딩스는 '관계로서의 배려'에 강조점을 두어 왔다(추병완 외, 2002: 46).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고 나아가 오늘날 다문화 사회에서 당연한 목표인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발전 추구를 위해서는 모든 주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배려는 우열의 간극을 제거할 수 있는 원동력의 역할을 한다. 배려는 소수문화의 문화적 맥락의 존중과 비선택적인 수용성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무시하거나 지배 논리에 빠지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배려는 앞서 살펴본 유럽의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의 관점과도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호문화적 접근방식은 단지처럼 간주되는 개인이나 문화자체가 아니라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다(홍종열, 2011: 317). 모든 행위는 나와 타자의 상호작용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이한 문화집단들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관계는 상호 평등하게 쌍방향적인 교류를 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만약 문화 간의 '관계'가 힘의 논리에 따른 관계라면 힘이 쎈 쪽에 약한 쪽이 포섭되어 버릴 것이고 그럴 경우 더 이상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관계'를 중요시하는 상호문화주의 관점에 따라 타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배려를 빼놓을 수 없다.

2. 다문화사회에서의 배려가 차지하는 위치

다문화사회에서 배려는 다수의 헤게모니 문화와 상대적으로 힘없는 소수문화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전통적으로 문화개념은 단일문화에 따라, 제도권 내에 단 하나의 주류문화만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단일문화로서의 전통적 문화개념의 구상은 민족의 삶을 전체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영역에까지 영향을 끼치며, 모든 행위와 모든 대상을 혼동될 수 없는 단일한 구성요소로 만든다(이용재, 2012: 40). 이러한 단일문화주의는 자민족 문화와 다른 문화와의 분리를 의미하며 문화 간의 소통을 거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 공동체 내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게 되었고, 민족 간, 문화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은 다문화교육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기득권을 가진 자문화 또는 자국민이 타문화, 타인종에 대한 배척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지만 점차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상생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협하는 절대적인 객관성, 보편성에 대한 믿음이 해체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 보편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힘 있는 다수의 헤게모니 문화가 힘없는 소수에게 강요되는 보편성을 가장한 특수주의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용재, 2012: 40). 보편적이라는 기준도 결국 다수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 기준에서 소외되는 소수에게는 그 기준이 특정한 문화에게만 적용하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집단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 타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것은 비단 소수문화가 주류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기 위해 배워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주

류문화도 다문화 사회를 인식하고 소외되는 문화를 존중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지식을 축적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상호인정, 움직임, 절차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타인을 무시하거나 지배 논리에 빠지지 않으면서 타인을 생각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장한업 역, 2010: 8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주의의 철학을 토대로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이 평등과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마리를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에서 찾고자 한다. 그러나 보편적인 욕구는 어느 문화나 어떤 인종에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선천적인 것이다. 보편적인 욕구에는 다양한 종류의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어머니와 자식 간의 배려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배려의 욕구이다. 이러한 배려의 보편적인 욕구의 존재는 이미 동서양의 철학에서 증명되고 있기도 하다. 나딩스는 배려하고 싶어 하고, 배려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라고 하였다(나딩스, 2009: 11). 이러한 배려를 통해 다문화사회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

배려는 배려하는 사람이 배려 받는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강자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불평등한 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배려하는 사람은 배려 받는 사람에 대해 개방적이고 비선택적인 수용성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배려 받는 사람과 느낌을 같이하고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자와 피배려자의 관계는 서로 불평등한 공헌을 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불평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다시 강자에 의해 약자가 일방적으로 배려 받는 불평등관계가 될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나딩스의 배려이론은 두 주체가 배려관계에서 서로에게 불평등한 공헌을 하고 있다라도 공헌하는 일은 상호적임을 전제하고 있다.(출처) 배려하는 사람이 자신의 관점을 강요하지 않고 배려 받는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공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배려 받는 사람의 배려자의 배려에 대한 수용과 반응이 없으면 그 배려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나딩스는 배려의 관계가 유지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려자의 진념 속에서 피배려자가 자신의 배려를 수용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배려자와 피배려자 사이에 상호성이 존재할 때 비로소 배려는 완성된다.

물론 배려가 상호성을 전제로 하기에 배려자가 피배려자를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관계가 아닌 것은 맞지만, 과연 배려 관계를 통해 얻을 것이 없어보이는 배려자 입장에서 어떻게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배려자에게 배려를 자발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상적인 성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배려 윤리가 전혀 낭만적이지 않고 실제적이라는 나딩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려는 관계이기에, 그것 위에 세워진 윤리는 자연스럽게 타자를 고려한다. 내가 관계 속에서 정의되기에, 나는 타자에게 배려자로서 다가갈 때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배려는 자기를 섬기는 것이자 타자를 섬기는 것이다. 게이린은 그것을 종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으로 “만약 참조 틀을 개인에게 맞춘다면 배려는 자기희생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초점이 집단에 즉 종에게 두어진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섬기는 수단 -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다”라고 기술한다.(한평수 역, 2009: 145-146)

어느 관계에서 배려자의 위치가 되었다고 해서 그 배려자는 타자와의 관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자존하지 않는다. 그도 역시 한 공동체 내에 타자와 관계하며 살아가는 이고 타자의 도움 없이는 생존하기 어렵다. 배려하는 사람과 배려 받는 사람의 역할은 고정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서로 바뀔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배려자였던 사람이 또 다른 상황에서는 피배려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려는 자기희생적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종의 생존을 지향하는, 즉 자기를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배려는 상이한 문화 집단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동된 기반을 마련한다. 배려는 단순히 다른 사람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 안으로 수용하여 함께 느끼는 것을 말한다(박병춘, 2002: 134). 이를 다문화사회에 적용하여 보면, 다문화사회에서의 배려란 자신이 속한 문화에 대한 특별한 가치들이나 관심들을 한동안 배제하고 타인의 문화를 내 안으로 수용하여 함께 느끼는 것이다.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 문화들 간의 경계가 배타적이지 않고 개방적으로 맞물려있기 위해서는 타인의 문화를 수용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배려가 타문화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3. 배려에 바탕을 둔 교육

다문화교육의 여러 접근방식 가운데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두 접근방식은 다문화 사회정의 교육(multicultural social justice education)과 배려중심 다문화교육(Caring-Centered Multicultural Education)이다. 먼저 다문화 사회정의 교육은 사회정치적인 관점이 가장 강한 접근법이다(추병완, 2011: 2).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인종, 계층, 성별, 장애에 근거한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행동을 독려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가르침은 법과 정책, 그리고 민주적인 가치들이 사회정의 실현에 근거라고 보고, 불평등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실천하는 미래 시민을 양성하려 한다.

다문화 사회정의 교육에 대한 보완으로 보다 학생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위해 요청되는 태도는 배려이다. 배려에 바탕을 둔 교육은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며,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상호 간의 올바른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교육이다(임정연·유재봉, 2012: 156). 개인을 집단의 구성요소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집단의 정체성보다 개인의 정체성을 우선하는 상호문화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의롭고 동정심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수문화에 속해있어서 차별과 배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는 배려 받는 경험이 중요할 것이고, 주류문화에 속해 있어서 소수문화의 소외되는 아픔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경험이 중요할 것이다. 물론 배려 받는 사람과 배려하는 사람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려 받은 사람이 언젠가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새로운 배려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나딩스의 "배려의 원(circle)과 배려의 사슬(chain)"의 개념처럼 배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확대될 것을 기대하는 교육이다.

배려중심 다문화교육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팡(V. O. Pang)이다. 그에 의하면 배려중심 다문화교육

은 ‘관계 형성’과 ‘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하나의 철학적 지향이다(지현아, 2013: 67). 학생은 자신과 다른 맥락에 있는 타자와 관계를 맺고, 타인의 문화적 맥락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주체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회는 단자처럼 간주되는 개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 간의 ‘관계’는 쌍방향적이어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상호 평등한 위치이고 이는 배려의 노력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정의와 공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우리가 타인을 배려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정의롭고 공평하게 대우하는 방법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추병완, 2011: 4).

이렇듯 다문화 사회정의 교육과 배려중심 다문화교육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사회정치적 접근은 의무와 법을 중요시 하는 반면에 배려 중심적 접근은 타문화를 이해하려는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 주체성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법이나 정책적인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다문화교육의 수혜자인 학생의 자발성과 능동성에 대한 관심은 미미하였다. 그러므로 다문화교육은 수혜자인 다문화자녀들과 주류문화의 학생들이 배려를 바탕으로 하여 평화로운 공존의 중요성과 상호발전의 추구를 향한 내적 동기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배려중심 다문화교육에서 지향하는 바이다.

IV. 다문화 사회에서의 배려교육의 의미

1. 교육적 의미

지금까지 다문화를 둘러싸고 법이나 정책적인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급한 것은 법 제화 보다 사회 내 다수자의 인식변화이다. 지금까지 다문화교육은 소수자 적응교육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다수자의 역할도 중요해지면서 상이한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다수자의 의식변화로의 다문화 교육을 지향하여야 한다(오영훈, 2009: 32). 지금까지의 다문화 사회에서의 교육적 논의는 정작 다문화교육의 수혜자인 학생의 자발성과 능동성에 대한 관심이 미미하였기 때문이다.

앞서 다문화교육의 여러 접근방식 가운데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두 접근방식은 다문화 사회정의 교육(multicultural social justice education)과 배려중심 다문화교육(Caring-Centered Multicultural Education)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 정치적인 관점이 강한 다문화교육의 접근법은 학생 자신이 불평등에 대한 자각과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자칫 위험한 교육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적 행동을 학생 내부로부터 동기를 이끌기보다는 외부로부터 강요된 교육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성을 있는 그 자체로 포용하려는 노력 없이 법과 정책을 보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더 나아가 소극적인 평등 보장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공존 형태로 상호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을 소수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자의 의식변화로 발전시켜야 한다. 세계 문제의 해결에 다수자도 소수자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행위는 단자처럼 간주되는 개인이나 문화자체가 아니라 나와 타자의 상호작용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관계는 상호 평등하게 쌍방향적인 교류를 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는 배려를

통해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이해와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할 때에 가능할 것이다.

2. 기독교 교육적 의미

다문화사회에서 종교는 민감한 문제이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 자칫하면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다문화교육의 담론에서 상이한 문화들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그 문화적 맥락에서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관점을 두고 기독교인이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를 합의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기독교인이 다문화교육을 대하는 접근 방식은 아무래도 사회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배려중심적인 접근에의 보완이 보다 적합하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주로 다문화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불평등을 고려하여 정책과 법 쪽의 보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이에 보완적인 측면인 배려 중심적 접근보다 주목받고 활발히 연구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기독교인이 잘 해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의 정신과도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기독교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웃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계승하여 다른 종교와 문화를 가진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다. 타종교에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무엇인가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감하는 바이자 공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바이다.

또한 현실적인 이유는 다문화 사회에서는 기독교리는 틀 안에서만 국한되어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이한 종교집단 간의 관계는 더 이상 자신만의 경계를 짓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소통과 상호작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두 주체는 서로 대화를 통해 평화로운 공존을 합의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종교교육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현직 종교교사이며 목사인 볼프강 크뢰거 박사는 기독교가 현대 독일사회의 다양함과 복잡성을 인정하고 타종교와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통해 독선을 탈피할 것을 권고하였다(오영훈, 2009: 36). 시대적인 변화를 읽어 기독교가 먼저 다른 종교를 그 자체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배려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상호인정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하고 타인을 무시하거나 지배 논리에 빠지지 않으면서 타인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 교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기독교가 독선에 빠져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들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포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문화사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동질화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자신의 색깔을 유지한 채,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V. 결론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배려중심 다문화교육에 대한 제안에 앞서 다문화의 개념과 다문화주의의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보았으며 다문화사회에서의 배려는 어떤 중요성을 갖는가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사회에서의 다문화교육의 한 방법으로써 배려 중심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그 시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다문화주의의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고 가장 이상적인 다문화주의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다문화의 개념과 다문화주의의 개념을 구분하고, 다문화가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가 포함된 다문화주의의 여러 관점들을 살펴보았다. 국내 다문화교육의 연구들이 주로 미국의 다문화교육 모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먼저 미국의 다문화 관점들이 흘러온 역사를 돌이켜보고, 유럽의 모형인 상호문화주의가 국내의 특수성을 보다 잘 반영한다는 논의가 증가함에 따라 보완적으로 연구해야 할 상호문화주의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여러 다문화의 관점들 중에서 상호문화주의의 관점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문화교육이 어떠한 접근을 하여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상호문화적 접근방식은 단자처럼 간주되는 개인이나 문화자체가 아니라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다(홍종열, 2011: 317). 모든 행위는 나와 타자의 상호작용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관계는 상호 평등하게 쌍방향적인 교류를 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타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것은 비단 소수문화가 주류문화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배워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주류문화도 다문화 사회를 인식하고 소외되는 문화를 존중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지식을 축적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상호인정, 움직임, 절차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타인을 무시하거나 지배 논리에 빠지지 않으면서 타인을 생각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장한업 역, 2010: 80)

서구 사회에서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다문화교육의 여러 접근법들이 시도되었다.³⁾ 다문화교육의 여러 접근방식 가운데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두 접근방식은 다문화 사회정의의 교육(multicultural social justice education)과 배려중심 다문화교육(Caring-Centered Multicultural Education)이다. 다문화 사회정의의 교육은 학생이 사회적 행동을 통하여 사회불평등의 구조를 직접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교육방식이다. 이는 사회정치적인 관점이 가장 강한 접근법이다(추병완, 2011: 2). 법과 정책, 그리고 민주적인 가치들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근거라고 보는 이러한 관점은 평등한 다문화 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룩하는 데에 행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작 다문화교육의 수혜자인 학생의 자발성과 능동성에 대한 관심은 미미하다는 점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사회 정치적인 관점이 강한 다문화교육의 접근법은 사회적 행동을 학생 내부로부터 동기를 이끌기보다는 외부로부터 강요된 교육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배려의 태도를 바탕으로 하여 평화로운 공존의 중요성과 상호발전의 추구를 향한 내적 동기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할 것이다. 그것은 배려중심 다문화교육에서 지향하는 바이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배려교육의 의미는 교육적 의미와 기독교 교육적 의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교육적 의미는 다문화교육이 이제 더 이상 소수자 적응교육이 아니라 다수자의 의식변화를 지향하는 형태로 발전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다문화교육은 소수자 적응교육으로 이루어져

3) 다문화교육은 크게 평등지향운동 또는 평등교수-학습방법, 교육과정개혁, 다문화적 역량,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가르침 또는 차별과 편견에 대한 저항이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옥순 외 역, 2009: 23)

왔기 때문에 소극적인 의미의 공존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수자의 역할도 중요해지면서 상이한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다수자의 의식변화로의 다문화 교육을 지향하여야 한다(오영훈, 2009: 32). 상호문화 교류의 주체는 소수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독교 교육적 의미는 타문화를 대하는 기독교인의 자세가 배타적이 아니라 배려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을 접근하는 방식 또한 배려 중심적 접근을 지향하여야 한다. 사회정치적 접근에 보완적인 측면인 배려 중심적 접근이 아직 연구가 미미하기 때문에 주목받고 활발히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독교인이 잘 해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정신과도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실적인 이유는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기독교라는 틀 안에서만 국한되어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이한 종교집단 간의 관계는 더 이상 자신만의 경계를 짓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소통과 상호작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시대적인 변화를 읽어 기독교가 먼저 다른 종교를 그 자체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배려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사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동질화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자신의 색깔을 유지한 채,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김선혜(2011). “다문화 관점 비교를 통한 다문화의 본질 찾기”. 『한국초등교육』 21권3호.
- 김옥순 외 역(2009). 『다문화교육 : 이론과 실제』. 학지사.
- 박병춘(2002). 『배려윤리와 도덕교육』. 울력.
- 오영훈(2009). “다문화교육으로서 상호문화교육 -독일의 상호문화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제15-2호.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08). 『다문화 사회의 이해 : 다문화 교육의 현실과 전망』. 동녘.
- 이용재(2012). “다문화사회 개념에 대한 고찰- 갈등의 양상과 해소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인간 제2권 제1호.
- 임정연·유재봉(2012). “나딩스 배려교육론의 도덕교육적 함의”. 『도덕교육연구』 제24권 2호.
- 장한업 역(2010).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한울아카데미
- 장한업(2009). “프랑스 상호문화교육과 미국의 다문화교육의 비교연구”. 『프랑스어문교육』 제32집.
- 정대현(2006). 『다원주의 시대와 대안적 가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정영근(2006). “상호문화교육의 일반교육학적 고찰”. 『교육철학』 37권.
- 지현아(2013). “배려 중심 다문화 인권교육의 적용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추병완 외 역(2002). 『배려교육론』, 다른우리
- 한평수 역(2009). 『배려: 윤리와 도덕교육에 대한 여성적 접근법』, 천지.
- 홍종열(2011).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글로벌문화콘텐츠』 제7호.